미국 인디언 회화에 나타난 날씨 현상에 대한 해석

강철성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2013년 11월 14일 접수, 2013년 11월 29일 수정, 2013년 12월 13일 게재 확정)

An Interpretation of Weather Phenomenon in American Indian Paintings

Chul-Sung Kang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14 November 2013, Revised 29 November 2013, Accepted 13 December 2013)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and interpret weather phenomenon of American indian paintings. From earliest times, visual artists of many cultures have found inspiration for enduring works in weather and the cycle of the seasons. Sun and clouds, violent storms, rains, and snowfalls have been used by painters to evoke an array of human moods, to mirror human actions. Representations of weather in all its variety have also been to express ideals of beauty and ideas about the moral and physical relationships between humans and the natural world. Particularly, Indian painting was already an ancient art when Spanish conquistadors forded the Rio Grande and moved into the American Southwest. For untold centuries aboriginal artists had expressed their reactions to their native land in pictures carved in rock, engraved on bone, painted on hides, wood, pottery, and cotton cloth-even drawn in colored sand. I consider that the typical Indian painting is imaginative, symbolic, two-dimensional. Its style may vary from supernatural to abstract. Subjects range from archaic religious symbols to portrayals of everyday life, from stylized landscapes to spirited hunting scenes. Painters are continually inventing ways to combine symbols of sky, harvest, or life forms, or to depict a certain dance, events. Eventually, Indian paintings in the exhibition derive from the ancient Indian traditions, and both in subject matter and manner of execution make a valuable and unique contribution to the body of creative art in America.

Key Words : Indian paintings, ancient art, archaic religious symbols, spirited hunting scenes

1. 서론

16세기 비잔틴(Byzantine)회가와 모자이크 디자인어들은 종교적이건 세속적이건 모든 공공건물에 날씨와 기후에 관한 의인화된 상징물을 장식

하였다. 지금은 사라진 가자(Gaza)목욕탕의 천장에 그려진 우주는 사계절과 동서남북 방향의 바람, 천둥, 구름의 이미지를 담았다고 전해진다. 또 북미 서부 평원지대에 거주한 인디언 샤이엔(Cheyenne) 부족은 가축 방패에 다섯 마리의 뇌신

조(thunderbird)를 그려 넣었다. 이는 전사들에게 자연의 가장 강한 표출인 정신적 에너지를 불어 넣어 전투의 승리를 기원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Maurer, 1992).

또한 풍경화를 그리는 유럽 전통의 화풍 출현으로 로마시대 이후의 미술가들은 자연의 고유한 형태, 색깔, 그리고 자연의 변화를 인간의 감정과 도덕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비평가들은 화가 알트도르퍼(A. Altdorfer)를 풍경화가의 시조로 간주하고 있다. 그의 작품은 구름과 태양 사이의 우주적 충돌이 일어나는 그 아래에서 인간 활동의 의미와 분위기를 강화시켜 준다. 르네상스의 종교적 작품 중 16세기 이탈리아의 베로네세(P. Veronese)의 ‘왕들의 숭배(The Adoration of Kings)’를 보면, 어둠과 구름을 헤치고 비치는 태양광선은 그것이 비추는 인간을 품위 있고 돋보이게 하며 영웅주의, 충성심 같은 덕목을 강조하는데 사용되었다(Ferrier, 1988).

대기의 효과는 대륙이나 바다의 풍경을 그리는 영국 화가 터너(J. M. W. Turner)의 작품 속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1805년 터너는 비 내리고 쌀쌀한 여름날, 템즈 강 하구를 탐험하면서 태양, 비, 구름의 변화하는 모습을 수채화로 담았다. 또한 그는 ‘비, 증기, 속도감-위대한 서부 횡단 철도(Rain, Steam, and Speed-The great Western Railway, 1844)’에서 색깔의 소용돌이로 대기의 움직임이 가득 찬 그림에 기관차가 또 다른 자연의 힘이 되어 보이도록 그렸다(Hill, 1993). 날씨 조건을 적절히 선택하여 도덕적 교훈을 전하는 방식의 자연 묘사는 19세기 중엽 미국의 허드슨리버 파(Hudson River School)의 처치(F. Edwin Church)의 작품에서 엿볼 수 있다. 그의 작품 ‘산지에서 몰아치는 폭풍우(Storm in the Mountain, 1847)’에서 미국 풍경화의 영웅적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 날씨 현상을 사용했다. 처치와 동시대의

인물인 비어스태드(A. Bierstadt)는 미국 서부의 선구적 화가이다. 그는 콜로라도와 와이오밍 지역의 풍경에서 발견한 시각적 자극과 도덕적 의미를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눈부신 햇빛, 시커먼 폭풍구름의 대비를 이용하였다(Metropolitan Museum of Art, 1987).

풍경화를 그리는 프랑스의 바르비종파(Barbizon School)의 화가들은 날씨의 그림같이 아름다운 효과보다는 일시적인 날씨현상을 묘사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바니스터(E. M. Bannister)는 미국에서 최초로 알려진 아프리카계 미국인 미술가다. 그는 빛과 어둠의 대비를 사용했고, 자세한 세부적인 면을 묘사하기 보다는 이미지를 형상화하였다. 예를 들면 1886년의 작품 ‘다가오는 폭풍우(Approaching Storm)’에서 한 외로운 인물이 희미한 풍경 사이로 걸어가는 모습은 자연의 힘과 아름다움을 작아 보이게 하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 화가들 중에는 인상주의파 모네(C. Monet)와 칼리보(G. Caillebotte)가 있다. 모네의 ‘건초더미(haystack)’시리즈는 빛과 대기란 요소를 배경으로 농부가 일하고 있는 들판을 묘사하기 위해 날씨 조건이라는 파레트(palette)를 사용했다. 이 스물다섯 장의 그림들은 실외에서 그려졌기 때문에 날씨 조건은 직접적으로 모네의 작품에 영향을 주었다. 칼리보의 유명한 작품 ‘비오는 날의 장소(The Place de l'Europe on a Rainy Day, 1877)’에서는 길을 걷고 있는 파리 시민의 우산이 주요 구성요소가 되고 있다. 아시아의 미술가들은 심미적인 시각을 표현하기 위해 날씨 이미지를 이용했다. 중국의 가오 코쿱(Kao Kokung), 일본의 뛰어난 판화가 호쿠사이(K. Hokusai), 히로시게(A. Hiroshige)는 바람과 물결, 눈, 안개, 세차게 내리는 비를 형식적인 디자인 요소로 표현하였다(Narazaki, 1969).

국내에서는 2000년 3월에 기상청 주관으로 갯

러리 사비나에서 일기예보전시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고, 회화에 관련된 국내의 해설서나 서적(손철주, 2010; 이태호, 2005; 최인경·강희경, 2004) 등은 많이 출판되었다. 그러나 회화 속에 나타난 날씨현상에 대한 논문은 거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의 연구를 위해 아메리카 최초의 화가들인 인디언의 회화 속에 나타난 날씨현상을 분석하고 해석하였다. 자료는 1955년 3월, The National Geographic Society에서 발행된 The National Geographic Magazine에 게재된 회화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그 회화 구성 내용을 해석하여 당시의 인디언들의 자연관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인디언 회화의 화풍과 기법

인디언 회화는 스페인 정복자들이 리오그란테강을 건너 미국 남서부 지역으로 이동하기 이전부터 고대 예술로써 꽃을 피웠다. 그들은 수세기동안 그들의 정착지에서 사냥 모습이나 날씨 현상인 태양, 달, 구름, 번개, 바람, 비 등을 바위에 새기거나 짐승들의 뼈, 짐승가죽, 나무, 도자기, 옷감 등에 그려 넣었다. 또한 그들은 정형화된 모델도 없었고, 어떠한 색채 이론도 없었으며, 심지어 원근법도 규격화하지 않았다. 때때로 그들은 그림 배경을 상상력으로 채워 넣었고, 그림 대상을 다양한 색상으로 묘사하였다. 인디언 화가들은 불필요한 것은 생략하고, 식물, 동물, 땅, 하늘 등을 그리는데, 추상적인 상징들을 이용하였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인디언 회화는 상상력과 상징성을 동원하여 2차원적인 그림을 완성하였다. 그들의 회화의 화풍은 반자연적이거나 추상적이며, 회화의 주제는 원시적인 종교적 상징물에서부터 일상생활의 묘사, 또한 정형화된 경관과 맹

렬한 사냥 모습 등 매우 다양한 편이다. 즉 회화는 하늘, 추수 장면, 생활 모습 등을 상징적, 창의적 방법으로 결합하기도 하고, 춤이나 놀이, 어떤 사건 등을 묘사하기도 하였다.

한편, 인디언 예술가들은 여러 가지 오해와 의기소침에 부딪치게 되었는데, 부족의 원로들이 외부 사람들과 회화를 공유하는 것에 불쾌감을 느껴 그들을 처벌하거나 추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백인 이주자들이 대평원에 거주하기 이전에는, 인디언들은 거의 모든 들소 가죽으로 만든 티피(tepee), 의상, 방패 등에 전쟁 중의 말과 사람, 축제, 사냥 등의 용맹스러운 모습을 그렸다. 백인들의 무질서한 이주의 소용돌이 속에서 들소 떼가 사라지는 시기에, 새로운 형태의 회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백인들에게 내쫓기게 되어 좌절된 인디언들은 일시적으로 백인들이 사용하다 버린 포장지나 육군 병참 장부, 무역 장부, 모슬린(muslin) 천 등의 그림 재료를 사용하였다. 자아 표현이 필요한 이 시기에 인디언들은 백인들이 제공한 연필과 크레용을 이용하여 그림을 그렸고, 심지어 미리 준비한 물감과 붓으로 어린 시절의 추억을 더듬어 과거의 부족 간의 전투나 백인들과의 전투 장면의 그림을 그렸다.

과거, 백인들과의 전투에 포로로 잡힌 인디언들은 교도소에서 그림을 통하여 자유와 승리를 되찾았다. 교도소를 탈출한 한 샤이엔족 인디언은 화첩을 어깨에 맨 채 전투에 참가하였다. 1878-79년 겨울, 로빈슨(Robinson) 요새의 한 장교 부관이 그 화첩을 사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는 거절하였고, 그 후 그는 전투에서 사망하고 화첩은 뉴욕의 미국 자연사 박물관에 들어가게 되었다(Dunn, 1955). 또한 동시대의 푸에블로 인디언과 나바호 인디언들도 스페인이 들어오기 이전부터 토착적이고 전통적인 그림을 그려 오늘날에도 미국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1) 최초로 포장지에 그려진 회화

1880년대 나바호 인디언 젊은이가 무역사무소에 나타나 칼라 크레용을 들고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관찰되었으며, 몇 년 후에 뉴멕시코 푸에블로 보니토(Pueblo Bonito)에 위치한 고대 유적을 발굴하고 있던 팀원 중 한 회원에 의해 나바호 축제 장면이 포장지에 그려진 그림이 발견되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1917년에 현대 인디언 미술학교가 설립되었다. 이후 뉴멕시코 박물관의 유적 발굴 팀은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버려진 동굴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곳에서 발굴 팀장은 호피 푸에블로(Hopi Pueblos)인디언들이 동굴 벽면에 숫 킴댕이를 사용하여 옥수수 씨를 뿌릴 때나 수확기 때 추는 의례적인 춤인 콘 댄스(corn dance), 독수

리, 들소, 사슴 등의 동물을 형상화한 그린 벽화 및 암각화를 발견하였다. 그 당시에는 전통적이고 토착적인 인디언 미술은 사라졌지만, 산타페에 있는 미국 인디언 미술학교에 공부하고 있었던 Ma-Pe-Wi(Red Bird)에 의해 계승되었다. 그는 중년의 나이였지만, 당시 인디언 회화의 거장이었다고 불리어졌다. 당대 그의 초기의 작품은 ‘들소 사냥(Buffalo Hunt)’이다(그림 1).

Ma-Pe-Wi는 인디언 언어로 붉은 새(red Bird)란 의미로, 당대 인디언 회화 거장들 중 한 사람이다. 그의 그림은 사실적 내용과 추상적인 내용을 혼합하였고, 고대 푸에블로 인디언 상징물을 배경으로 하여 인간과 동물을 묘사하였다. 상단 부에는 구름과 구름 밑으로 내리는 비를 의도적으

그림 1. Buffalo Hunt · Ma-Pe-Wi(Zia Pueblo)

출처: The National Geographic Magazine, 1955, 3

로 묘사하였고, 전형화 된 색상으로 구성된 산위로 떠오르는 태양은 오늘날 뉴멕시코의 주 깃발과 흡사하다. 또한 하단에는 삼각형의 구름을 묘사하여 그 사이로 오랫동안 인디언들의 음식 재료인 견과류가 생산되는 난초의 일종인 yuccas, pinons 혹은 nut pines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묘화하였다. 즉, 들소를 사냥하는 사실적 모습과 구름, 비, 태양 등을 추상화하여 캔버스에 그림을 그렸다. 대체로 인디언 화가들은 회화에 빛과 그늘, 원근법 등을 무시하였으며 단순화하는데 익숙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도자기, 벽화에서 소생된 인디언 회화

뉴멕시코의 San Ildefonso 미술학교는 산타페에서 인디언 미술에 영향력을 미치는 중심 센터가 되었다. 과거 북부 리오그란데 계곡에 위치한 이 마을은 황폐화 되었는데, 푸에블로 인디언 출신인 마리아(Maria)와 마르티네즈(J. Martinez)가 새로운 광택을 낸 도자기를 제조하면서 도자기의 부흥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마을은 그들의 새로운 도자기 제조기술의 성공으로 지역의 경제적 위상을 한층 높게 되었다. 한편 이들의 업적과 1918년 세상을 떠난 크레스센시오(Crescencio)의 회화 작품에 힘입어, 이 마을의 젊은이들이 수채화를 그리기 시작하였다. 그 중 한 미술가인 슬론(Sloan)은 권위 있는 새로운 미술의 한 형태로 인정받아 마드리드, 프라하, 베니스 등으로 이들 작품의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또한 1932년 미국 인디언 사무국 정책의 변화로-최초로 연방 정부의 후원으로- 산타페의 인디언 미술 스튜디오가 정식으로 문을 열게 되었다. 이에 따라 뉴멕시코와 애리조나로부터 많은 푸에블로, 나바호, 아파치 인디언 젊은이들이 이 학교로 몰려들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다코타 주에서의 수(Sioux)족, 아라파호(Arapaho)족, 샤이엔족, 오클라호마 주

의 카이오와(Kiowa)족 등 미국의 먼 지역으로부터 미술을 공부하기 위해 이곳으로 왔다. 이들은 각 부족의 특성(사냥 장면, 일상생활의 모습, 부족의 고유한 신화적 환타지 등)이나 주제, 색상, 그들 고유의 테크닉 등 개인적 스타일에 따라 그림을 특성화하여 묘화하였다.

한편 산타페의 인디언 미술학교의 미술가들은 최초로 현대 인디언 벽화를 그리게 되었다. 그들의 회화는 색조, 명암이 단조롭고 장식 예술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이들 그림들은 현대 건축물의 벽면이나 정면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젊은 미술가들은 전문적으로 회화 작업에 종사하게 되었고, 그들 작품은 샌프란시스코, 파리 등 여러 지역에서 전시회를 열어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게 되었다. 이들의 그림을 살펴보면, 그들이 표현하고자하는 지역과 미술가들에 관한 흥미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푸에블로 인디언의 회화는 간결하게 무늬 있는 장식, 반복적이고 주기적이며 상징적 기호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특색이다. 또한 부족들의 일상생활의 모습이 하 지나 계절에 따라 표현되었다. 특히 농업은 푸에블로 인디언의 주요 활동인데, 종종 가뭄을 초래하는 날씨의 변덕스러움에 지배되는 상황을 주로 회화에 반영되었다.

3. 인디언 회화의 날씨현상의 특색

1) 푸에블로 인디언 출신 MA-Pe-WI의 작품 중 Deer

MA-PE-WI는 계절에 따라 축제나 사냥 활동의 회화를 매년 돌아가면서 묘화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봄에는 의식, 사냥, 농작물 파종 등을 그렸으며, 여름에는 주거시설이나 도자기 만들기, 작물 재배 그리고 비 기다리는 의식(기우제), 가을

에는 추수, 식품 저장, 추수감사에 대한 의식 등을 캔버스에 표현하였다. 특히 그의 작품 중 '사슴(Deer)'에서는 화폭의 상단에는 구름과 비, 메신저 새, 중·하단에는 가문비나무 숲, 새끼사슴과 퓨마, 하단에는 물새와 조각구름과 비의 형상을 상징화 하여 표현하였고, 맨 하단에는 비옥한 토양과 곡물 씨앗을 묘화하였다(그림 2). 이 그림의 구성 요소를 해석해보면 한편의 줄거리로 구성된다. 즉 두 마리의 아기 사슴이 뛰고 있는데, 그 뒤에는 가문비 숲에서 슬그머니 닦아오는 퓨마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반면에, 하늘에는 메신저 새들이 구름으로부터 쏟아지는 비속에서 휩 하고 지나가고 있다. 앞쪽 전경에는 있는 물새 두 마리는 꼬리 깃털 대신에 씨를 뿌린 토양위에 비를 달고 앉아 있는 형상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그림의 상징성은 인디언 부족들에게는 사냥과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비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

는 계기가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2) 나바호 인디언 출신 GERALD NAILOR의 작품 Hauling Water

푸에블로 인디언 미술가와 마찬가지로, 근대의 나바호 인디언 미술가들도 그들 부족의 풍습에 따라 보다 객관적인 회화를 그리게 되었다. 그들은 원시적이고 황량한 나바호 거주 지역에서 종교적 의식과 기후, 풍토, 환경이 혹독한 생활에 대한 관점을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특히 물 부족 현상은 푸에블로 지역보다 보다 심했으며, 그들의 거주 지역에는 생명을 불어주는 어떤 하천도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하여 물 부족 현상에 당면하게 되었고, 토양 침식으로 인해 토지는 황폐화되었다. 또한 가축도 감소하게 되었고, 식량과 양모도 부족하게 되었다.

Nailor의 '물 운반(Hauling Water)' 그림은 이러

그림 2. Deer · MA-PE-WI

출처: The National Geographic Magazine, 1955, 3

그림 3. Hauling Water · GERALD NAILO

출처: The National Geographic Magazine, 1955, 3

한 절망적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그림3). 이 그림은 명암이 선명하고, 뿔이 달린 태양이 물을 빨아들이는 모습을 형상화하였고, 물을 얻기 위하여 말에 물통을 매달고 긴 여행을 떠나는 한 가족의 여정을 묘사한 그림이다. 이 작품은 아름다운 선(line), 색채와 능숙한 붓놀림으로 그려진 회화라고 볼 수 있다.

3) 나바호 인디언 출신 BENNIE TILDEN의 작품 Wind Way

Tilden의 작품 ‘바람 길(Wind Way)’은 수세기 동안 진전되었던 복잡하고 추상적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4). 그 내용은 종교적 전승으로 알려진 나바호 부족의 신과 권력을 의미한 상징물로 구성되어 있다. Dunn은 이 회화가 나바호 인

디언의 샌드 페인팅(sand paintings)의 걸작이라고 주장하였다. 샌드 페인팅은 색깔이 있는 모래와 안료로서 건조한 그림물감을 사용하여 묘화한 그림을 말한다. 나바호 인디언들의 그림 주제는 부족의 종교의식,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행위, 악마를 쫓아내는 의식,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는 의식 등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나바호 인디언의 후예인 Tilden은 오일 대신에 단백질을 함유하거나 콜로이드 성분으로 그림을 그리는 템페라 화법으로 ‘바람 길’을 그렸다.

또한 ‘바람 길’은 강력한 종교의식의 주제로서 사용되었고, 외부의 사람들에게 신비스러운 영감을 불러 넣어준 그림이라 볼 수 있다. 특히 나바호 부족의 금기 때문에 대부분의 미술가들은 실제적인 샌드 페인팅을 모방하지 않고, 독 도마뱀, 태

그림 4. Wind Way · BENNIE TILDEN

출처: The National Geographic Magazine, 1955, 3

양, 무지개 등과 같은 소수의 선택된 주제를 자연스럽게 화폭에 담았다.

‘바람 길’ 그림 중에 표현된 키가 큰 형상은 초자연적 존재로 상징되며, 이들 존재들은 뱀을 손에 움켜쥐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특히 머리 위에 깃털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은 풍향을 나타내고 있어, 이 그림의 제목이 되는 ‘바람 길’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4) 수족 인디언 출신의 CALVIN LARVIE의 작품 People of the Sky

수(Sioux)족 인디언 후예인 Larvie의 작품 ‘하늘을 달리는 사람들’의 그림은 오래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들소 가족에 그림을 그렸듯이, 전사들이 말을 타고 대평원 위로 날아오르는 모습을 풍부한 상상력으로 묘화하였다(그림 5). 이 회화에서 4명

의 인디언들이 군마를 타고 속도감 있게 중앙으로 몰려드는 형상은 오직 대평원 인디언들만이 할 수 있는 회화기법이었다. 특히 거대한 검은 뇌조의 황금 눈에서 방출되는 번개와 우박 모양의 얼룩무늬를 한 군마를 타고 날아다니는 인디언 전사들의 모습에서 전율 감을 느끼게 한다. 또한 뇌조는 하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전령자로 묘사되며, 번개는 바로 인디언들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고 있었다. 즉 뇌조와 번개는 수족 인디언들의 수백 년 동안 내려 온 신화를 상징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또한 반달 모양의 형상은 구름을 의미하며, 아래로 드리워진 삼각형 형상은 바로 비가 내리는 모습을 표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림 5. People of the Sky · CALVIN LARVIE
출처: The National Geographic Magazine, 1955, 3

5) 코치즈 푸에블로 인디언 출신의 JOE H. HERRERA의 작품 Bear Hunt

Herrera의 미술작품은 과거 인디언 선조의 모티프가 오래될수록 보다 추상적인 형상으로 표현되었고, 근대 인디언 미술의 출현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녀의 회화 스타일은 그녀의 어머니로부터 배운 인디언 보편적 스타일을 벗어나 과거 독창적인 옛 인디언 회화 기법을 이용하였다.

Herrera 작품 중 하나인 'Bear Hunt'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이 추상적 그림을 볼 때, 화선지를 제외하고 화폭에 나타나는 모든 구성된 회화 요소들은 수 세기 동안 푸에블로 인디언 미술의 토착적이고, 고유한 형상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림 6). 이 그림을 보면 곰과 사냥꾼의 발자국을 묘화하였고, 화폭의 구성 요소들은 모두 푸에블로 인디언의 중요한 개념인 자연과의 공생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태양 반쪽은 구름이 덮여 있고, 가느다란 눈을 하고 있는 태양, 그 태양을 횡단하고 있는 곰발자국, 오른쪽 맨 위의 뿔 달린 달과 오른쪽 맨 아래의 지구관 행성과의 연관성 등은 인디언의 일상생활과 매우 관련 깊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러한 상징성은 비를 굶은 점선으로, 산은 지그재그 경계선으로, 돛대 모양은 구름으로, 삼각형의 토지 가운데 점은 씨앗을 의미하고 있다. 이처럼 고대의 인디언들은 생활과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회화로써 상징적 표현을 그려내었음을 알 수가 있다.

특히 인디언 미술가들은 우유와 흙과 안료를 혼합하여 그리는 카세인 탐페라 화법(casein tempera paint)을 사용하였고, 붓은 난초의 일종인 유카(yucca)잎의 끝부분을 잘라 사용하였다. 또한 이들 미술가들은 스프레이 기법을 활용하였는데,

그림 6. Bear Hunt · JOE H. HERRERA

출처: The National Geographic Magazine, 1955, 3

이 기법은 입으로 안개처럼 뿌려서 그리는 화법을 의미한다. Herrera의 선사시대의 상징물들은 뉴멕시코에 있는 암벽화나 건물 벽화에서 아직도 볼 수 있다. 그녀의 작품은 1952년 뉴멕시코 박물관에 전시되어 대성공을 이루었고, 대부분 작품들이 팔려나갔다.

4. 요약 및 결론

인디언 회화는 고대의 예술로서 꽃을 피웠는데, 수세기 동안 그들의 정착지에서 사냥 모습이나 날씨 현상인 태양, 달, 구름, 번개, 비 등을 바위에 새기거나 짐승들의 뼈, 가죽, 나무, 도자기, 옷

감 등에 그려 넣었다. 또한 그들은 정형화된 모델도 없었고, 어떠한 색채 이론도 없었으며, 심지어 원근법도 규격화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인디언 회화의 화풍은 초자연적이거나 추상적이며, 회화의 주제는 원시적인 종교적 상징물에서부터 일상생활의 묘사, 또한 정형화된 경관과 맹렬한 사냥 모습 등 매우 다양한 편이다. 6편의 회화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Ma-Pe-Wi의 ‘들소사냥’ 그림은 사실적 내용과 추상적 내용을 혼합한 것이 특징이다. 구름 밑으로 내리는 비, 산 위로 떠오르는 태양, 삼각형의 구름, 그 사이로 그들의 음식 재료인 유카(yuccas), 열매소나무(pinons) 혹은 종자가 식용인 소나무(nut pines)가 자라고 있는 형상을 묘화한 것

은 그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냥 모습과 날씨현상을 표현한 뛰어난 작품이다. 또 하나의 작품인 ‘사슴’그림은 화폭의 상단에는 구름과 비, 메신저새, 하단에는 물새와 조각구름과 비의 형상을 상징화 하여 표현하였다. 이러한 상징성은 인디언 부족들에게는 사냥과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비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Nailor의 작품 ‘물 운반’은 물을 얻기 위하여 말에 물통을 매달고 긴 여행을 떠나는 한 가족의 여정을 표현한 그림이다. 이 작품은 아름다운 선, 색채와 능숙한 붓놀림으로 그려진 회화로서 기후, 풍토, 환경이 혹독한 생활에 관한 관점을 묘화한 점이 특이하다.

Tilden의 작품 ‘바람 길’은 키가 큰 모습으로 그려진 형상은 초자연적 존재로 상징되며, 머리 위에 깃털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이는 인디언들이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불어오느냐에 따라 강수의 유무를 파악할 수 있는 이미지를 상징화 하였다.

Larvie의 작품 ‘하늘을 달리는 사람들’의 그림은 뇌조와 번개는 수족 인디언들의 수백 년 동안 내려온 신화를 상징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또한 반달 모양의 형상은 구름을 의미하며, 아래로 드리워진 삼각형 형상은 바로 비가 내리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이처럼 인간-하늘-땅 간의 상호 연관적 관계를 상징화한 회화는 바로 그들의 일상생활이었다고 볼 수 있다.

Herrera의 작품 ‘곰 사냥’은 태양 반쪽은 구름이 덮여있고, 가느다란 눈을 하고 있는 태양, 뿔 달

린 달, 지구 등은 인디언들의 생활 풍속과 매우 관련 깊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비를 굵은 점선으로, 산은 지그재그 경계선으로, 돛대 모양은 구름으로, 점은 씨앗으로 상징화하여 표현하였다. 이처럼 고대의 인디언들은 생활과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노력을 그림으로 묘화하였다.

끝으로 본 글에서 출현한 인디언 회화는 주제나 제작 방법으로 볼 때 고대 인디언의 전통에서 유래되었으며, 이후 미국의 창의적 예술 활동에 가치 있고, 독특하게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손철주, 2010, 그림 보는 만큼 보인다, 도서출판 생각의 나무.
- 이태호, 2005, 조선후기 그림의 기와 세, 학고재.
- 최인경·강희경, 2004, 서양미술 400년: 푸생에서 마티스까지, (주) 지앤씨 미디어.
- Dunn, D., 1955, America's First Painters, *National Geographic Magazine*, 3, 349-378.
- Ferrier, J. L., 1988, *Art of Our Century: The Chronicle of Western Art, 1900 to the Present*, New York Press.
- Hill, D., 1993, *Turner on the Thames*, New Haven Press.
- Maurer, E. M., 1992, *Visions of the People: A Pictorial History of Plains Indian Life*, Minneapolis Press.
-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87, *American Paradise: The World of the Hudson River School*, New York Press.
- Narazaki, M., 1969, *Hiroshige: The 53 Stations of the Tokaido*, Tokyo Press.